

▶담양군 대덕면에 자리한 '글을 낚는 집' 전경. 문인들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로 개관한 이곳에는 집필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글을 낚는 집'에 입주한 문인들이 독서세미나를 하고 있다. <'글을 낚는 집' 제공>



담양 창작스튜디오 '글을 낚는 집'



# 文鄉 남도 빛낼 '창작의 산실'

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 남도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개관과 아울러 '글을 낚는 집'은 문화예술회관 '문학창작공간지원사업'에 선정, 전문적인 문학창작스튜디오로서의 여건을 갖추기에 이른다. 이곳은 정부 지원금 50%와 김 대표가 50%를 분담해 운영된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나를 위한 여생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심 끝에 창작 집필실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내를 설득했다."

김규성 대표는 이 일을 시작하기까지 아내(59·김선숙)의 공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입주한 작가들의 숙식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다.

김 대표는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식단이다. 대체로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식사를 거르고 불투할 때가 많다. 아내가 자연식 위주 식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고 말한다.

집필실 제공 프로젝트에 원주 토지문화관, 인제 만해문화관, 증평 21세기문화관, 이문열 작가의 부악문원, 글을 낚는 집 5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설문 결과 공간, 음식, 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글을 낚는 집'이 1위"라며 은연중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 또한 시를 쓰는 시인이다. 2000년에 현대시학회 '달동네'의 9편이 당선돼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산들레 민들레'(2012) 등을 펴냈다.

'글을 낚는 집'을 매개로 한 성과도 적지 않다. 2013년 작가들은 산문집 '길의 안부를 묻다'(작은숲)를 펴내기도 했다. '스스로 유배 보내' 이들이 풀어낸 성찰의 메시지는 적잖은 울림을 준다.

2010년에는 보성출신 김은성 희곡작가가 '연변암마'로 대산창작기금(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강석경 작가가 '신성한 봄'으로 제16회 동리문학상(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작년 봄에 입주했던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이원화(46) 작가는 "동료작가들로부터 자극도 받고 창작에만 신경 쓸 수 있어 좋다. 올해 소설집 '키스가 있는 모델'을 펴낸 것은 다분히 '글을 낚는 집'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선묵연회'

30주년 기념전 19~25일 금호갤러리

여성 서예가들의 모임인 지선묵연회(회장 정영애)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선묵연회의 이름은 대학(大學)의 3강령 중 하나인 '지어지선(止於至善)'에서 따온 것으로, 서예를 통해 지극한 선(善)에 머무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선우 작 '無題'

지선묵연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30주년 기념 제15회 전시회를 연다.

1984년 창립된 지선묵연회는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배운 여성 서예가들의 모임으로 2년마다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41명이 참여해 전·예·해·행·초사와 한글로 쓴 고문 작품부터 문인화, 전각 부문까지 모두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소품부터 거기에, 병풍 등 대작에 이르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개막은 19일 오후 5시30분이다. 문의 062-360-8431~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들

### 내일 광주서 문화정책세미나

전국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들이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를 주제로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문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로 류재한 전남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연구책임자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광호 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성을 위한 주요 이슈 검토' 주제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김중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시행령 마련과 관련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21. /이보람 boram@kwangju.co.kr

### '이유정·김재은·김재준 트리오 콘서트' 21일 금호아트홀

## "가족과 첫 연주회 설레... 매년 테마연주회 열 것"

'가족들이 전하는 봄날의 클래식 선율,' 첼리스트 김재준(36),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은(여·34)씨는 남매 연주자다. 피아니스트 이유정(여·35)씨는 김재준씨와 결혼하면서 한 가족이 됐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 연주회를 마련했다. '이유정·김재은·김재준 트리오 콘서트'가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함께 연주하는 게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독일에서 귀국한 게 2010년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제 꼭 한번 같이 연주하자고 했는데 정신 없이 지나다 이제야 연주회를 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첼로를 시작한 재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수석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독일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유정씨가 재준씨의 독주회 반주를 맡았



고, 함께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재은씨는 전남대를 거쳐 독일 카셀 음대와 바우츠버그 국립음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2008년 귀국,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 중이다. 귀국 연주회 때는 유정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었다.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재은이가 연습하러 서울에 오고 갔어요. 저는 와이프랑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었고 동생 재은이하고도 어릴 때부터 함께 연주했던 터라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21일 연주회를 갖는 김재은·이유정·김재준 씨(왼쪽부터).

매게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도 매년 테마를 정해 연주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연주회 타이틀 '봄의 선율'에 걸맞게 레퍼토리는 밝은 느낌의 친숙한 곡들로 골랐다. 바흐의 '첼로 조곡 1번 G장조', 베토벤의 '바이올린 로망스 2번',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번호 90',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스마트콘텐츠 교육생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오는 28일까지 '스마트콘텐츠 스토리디자인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스마트콘텐츠 스토리디자인 과정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준비된 스토리 기획·창작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스토리 구성부터 기획, 창작까지 교육생 스스로 디자인하고, 뉴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분석과 과제 수행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체 제작·기술 인력과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세부 교육내용과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0-245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9

#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